

# 팀 승리 견인차 역할 톡톡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와 원정경기서 시즌 4호 결승골 넣어

손흥민(토트넘)이 도르트문트(독일)를 상대로 역전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FCA) 챔피언스리그 H조 5라운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1분 결승골을 넣었다. 이 골은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2호 골이자 시즌 4호골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적지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5경기 무패(4승 1무·승점 13)를 내달리며 H조 1위를 지켰다.

이미 16강행을 확정한 토트넘은 이날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내세운 3-5-2 전술을 가동했다.

선제골은 도르트문트가 넣었다.

전반 31분 오마예양이 안드리 아르몰렌코의 패스를 건네 받아 첫 골망을 길렀다.

토트넘은 후반 4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수비수 2명 사이를 뚫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다.

팽팽하던 승부는 후반 31분 손흥민에 의해 깨졌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FCA) 챔피언스리그 H조 5라운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1분 결승골을 넣었다.

알리가 페널티 지역 원쪽으로 파고들어 찔러준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 맛을 봤다.

손흥민의 골로 역전에 성공한 토트

넘은 이후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추가골 사냥에 나섰지만 더 이상 골은 터지지 않은 채 경기를 마쳤다.

/뉴스

## 넥센, 내년 시즌도 브리검·초이스와 함께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

넥센 히어로즈가 기존의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29), 티자 마이클 초이스(28)와 재계약하며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넥센은 22일 “브리검과 총액 65만 달러, 초이스와는 총액 60만 달러에

했다.

올 시즌 중반 대체 외국인 선수로 KBO리그에 데뷔한 브리검과 초이스는 내년 시즌에도 넥센 유니폼을 입게 됐다. 넥센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에스밀 로저스와 구단 역대 외국인 선수 최고인 총액 150만 달러에 계약한 바 있다.

재계약 대상으로 협상을 한 끝에 브리검과 초이스를 불렀는데 성공하며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구성은 완료, 내년 시즌 전력 구성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브리검은 지난 5월 션 오설리반의 대체 선수로 팀에 합류해 선발로 24경기에서 등판 144이닝을 던지며 10승 6패 평균자책점 4.38을 기록했다.

140km 후반대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 자입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워 데뷔 첫해 두 차례 승수를 달성했다.

브리검은 계약 직후 “KBO리그에서 다시 뛸 수 있게 돼 기쁘다. 가족들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구단에 진

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내년 시즌을 스프링캠프부터 함께 준비한다는 사실이 매우 흥분된다. 올 시즌 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에는 더욱 좋은 공을 던져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초이스 역시 후반기 대내 돈의 대체 선수로 팀에 합류했다.

팀 합류가 늦은 만큼 올 시즌 46경기에 출전에 그쳤지만 타율 0.307(176타수 54안타) 17홈런 37득점 42타점으로 인프라 3개당 1개꼴로 담장을 넘겼다.

특히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달 3일 대구 삼성전에서는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연타석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다.

초이스는 “계약을 해준 구단에 감사한다. 올 시즌 중반 대체선수로 팀에 왔지만 친절한 동료들과 좋은 팀 분위기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며 “내년 시즌도 뜻 관리를 잘해서 부상 없이 치르고 싶다. 무엇보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레이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메이저리그, 日 야구천재 오타니 쟁탈전

상한액 최대 2000만 달러

을 겨울 메이저리그 이적시장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오타니 쇼헤이(23·닛폰햄 파이터스)의 미국 진출 길이 열렸다.

오타니의 포스팅 상한액은 기존 합의안에 따라 최대 2000만 달러가 된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IB닷컴은 2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메이저리그와 일본야구기구(NPB)의 새로운 선수계약협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160km가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지고, 한 시즌 20개 홈런을 넘길 정도다.

이번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즉 비공개 경쟁입찰 제도를 통한 미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메이저리그 구단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기존 메이저리그와 일본야구기구의 포스팅 시스템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만료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양측은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고 선수노조의 동의를 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타니의 미국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뒤로 뛰지 않는 것과 같다며 포스팅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선수노조가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도 발효가 늦어져 오타니의 올 겨울 메이저리그 진출이 무산될 수 있음을 보인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포스팅 개정안 최종 승인을 거치기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오타니 쟁탈전은 다음달 2일 시작될 전망이다.

다행히 선수노조가 미감시한 후로 연장한 끝에 개정안에 최종합의하면서 오타니의 미국 진출도 가능해졌다.

다만 올 겨울까지는 민요된 기존 포



닛폰햄 파이터스의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는 기존 포스팅 상한액 2000만 달러를 입찰액으로 제시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빅리그 구단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오타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티자가 내야방법을 때리고 1루로 뛰지 않는 것과 같다며 포스팅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닛폰햄 파이터스는 오타니의 미국 진출로 2000만 달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포스팅 개정안 최종 승인을 거치기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오타니 쟁탈전은 다음달 2일 시작될 전망이다.

FA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협상 기한은 기존 30일이 아닌 21일로 줄였다.

다음달 22일에는 오타니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 23세인 오타니는 25세 미만 해외 선수 계약규정에 따라 미이너리그 연봉계약만 가능하다.

구단마다 해외선수 계약 총액도 제한돼 있어 현재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의 350만~500만 달러가 오타니에게 투자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다음으로 뉴욕 양키스(350만 달러), 미네소타 트윈스(300만 달러) 정도가 300만 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미·일 선수 계약협정 개정안은 선수의 계약 총액에 따라 원소속팀에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질 예정이다.

2500만 달러 미만 계약은 20%, 2500만~5000만 달러 계약은 17.5%, 5000만~1억 달러 계약은 15%에 해당하는 입찰액이 일본 원소속팀에 지급된다.

포스팅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협상기간은 종전과 같은 30일로 3년 간 지속된다.

/뉴스

## ‘라이언 킹’ 전설 계속된다… 이동국, 전북현대 재계약

프로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언 킹’ 이동국(38)이 내년에도 전북현대의 녹색 유니폼을 입는다.

전북은 22일 올해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이동국과 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동국은 전북과 10년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2009년 전북 입단과 동시에 청단 첫 K리그 우승에 일조한 이동국은 올해 K리그 클래식 우승까지 전북에서 부상 없이 치르고 싶다. 무엇보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레이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만 K리그 292경기에 출전해 138골 42도움을 기록했고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57경기에서 32골 8도움을 올렸다.

특히 올 시즌 K리그 최초로 통산 200골(현재 202골)을 돌파했고 70-70 클럽에 가입했다.

9년 연속 두 자릿수 골 기록도 세웠다.

이동국은 “나이가 아닌 내가 가진 기량과 선수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한다”며 “내년에도 전북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그라운드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